

[오늘의 성가] 시작: 287 봉헌: 216 성체: 160 파견: 286



신부님, 신부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지난 5 월 제주교구로 성지순례 갔다가 용수성지에 들렸습니다. 성지 마당에는 작은 목선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3.5 미터, 너비 4.8 미터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입국하신 라파엘호를 복원한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 년 8 월 17 일에 중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조선교구 3 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 주 후에 주교님을 비롯한 13 명의 일행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작은 배로 망망대해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신부님 일행은 40 여 일의 항해 도중, 여러 번 폭풍우를 만나 침몰의 위기를 넘기면서 9 월 28 일에 제주도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조선에서 구입한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로 가는 길에서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파엘 호는 1845 년 4 월 30 일에 제물포를 출발하여 6 월 4 일,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큰 폭풍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과 동행한 신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모님 상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36 년 4 월, 15 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 그해 12 월 고국을 떠나 다음해 6 월, 마카오에 도착하여 사제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1846 년 9 월 16 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전에도 군중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고난으로 점철된 삶에서도 김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조선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 2 독서) 또한 예수님께 대한 충실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복음) 지금 우리는 과거처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도전은 황해의 노도처럼 거세고, 온갖 유혹은 보이지 않는 오랏줄처럼 우리를 움아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제들이 더욱더 성령께 의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여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험차게 싸우고 교묘한 유혹의 올가미를 결연하게 벗어던지며 주님의 복음을 확신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손희송 배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1.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 년 7 월 20 일 (토) 5 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2. 견진 교육 일정 (총 2 회)
일시: 1 차 - 7 월 6 일 (토요일) 저녁 7 시
2 차 - 7 월 13 일 (토요일) 저녁 7 시
장소: 사제관 (409 N. Eau Claire #102, Madison)
이번 주 토요일 부터 견진 교육이 시작되오니 견진성사 신청자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3. 예비자 입교식 : 7 월 27 일 토요일 미사 중
예비자 교리 첫모임: 7 월 27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4. 주교님께 드릴 영적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흥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적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시기 바랍니다.